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83)(11/5/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12 장 거룩한 십자가라는 왕도, 9-10 절

마 20:23 -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롬 8:18 -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 5:3-4 -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갈 6:14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후 12:4 -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행 9:16 -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9.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몸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것, 높임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 책망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받기를 원하는 것, 모든 역경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를 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늘로부터 당신에게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세상과 육신이 당신의 권세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가 있다면, 원수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0. 그리스도의 선하고 신실한 종답게,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십시오. 괴로움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역경들과 괴로움들을 견뎌내고 감당할 각오를 다지십시오. 어디에 있든, 거기에는 역경이나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어디로 숨든, 거기에도 여전히 역경이나 괴로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환난과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비책은 없고, 단지 그것들을 참고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 함께 분깃을 나누고자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마시십시오(마 20:23). 위로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쪽으로 당신에게 행하시게 하십시오. 오직 당신은 진심으로 온갖 환난들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그 환난들을 최고의 위로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온갖 환난들을 모두 다 감당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현세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롬 8:18).

11.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환난이 달콤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롬 5:3-4, 갈 6:14). 당신은 이 땅에서 낙원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 하는 동안에는, 당신은 불행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 환난이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12. 당신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 즉 환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상태는 머지않아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바울과 함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경험이 있다고 해서(고후 12:4)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어떤 해악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행 9:1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영원토록 그를 섬기면, 늘 고난을 받게 됩니다.

**말씀과 해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듯이(롬 8:34),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수고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고전 15:10 -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사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당면한 시험과 환난을 견디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히 4:15-16 -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은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위로, 비전, 기쁨 등을 허락하신다. 이것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육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 받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역하던 바울에게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을 체험하는 영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그를 격려하셨다. 바울은 고후 12 장에서 자신이 삼촌천에 다녀왔다고 고백했다. **고후 12:1-2, 4. -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러한 신비한 경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 가셨을 때, 자신의 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눅 9:28-20 - 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영적 체험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척박한 사역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들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 부여를 주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육적으로 너무나 고되고 힘든 사역을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를 가지고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주님은 삶의 문제로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며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당면한 십자가를 비롯한 각종 사명과 고난의 문제를 제대로 감당함으로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다. 우리의 영적인 경주와 싸움을 지금도 계속된다. 바울처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딤후 4:7-8 -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비로운 영적인 기쁨과 위로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기관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지키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우리가 속한 미국장로교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진정한 영적 갱신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